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2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설 연휴 병·의원

약국 150곳 문 연다

정읍시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정읍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12개소의 병·의원 99개소, 약국 51개소 등 총 150개 기관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됐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정읍아산병원은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다. 이외 보건기관과 일부 병·의원에서 당일 외래진료를 실시한다.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공공심야약국인 '샘골약국'은 연휴 기간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운영 정보는 △정읍시보건소(063-539-6137~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e-gen.or.kr)나 스마트폰 앱(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읍면 방문 나눔대화 성료

심덕섭 군수, 14개 읍·면 찾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만들 것"



고창군수가 2026년 병오년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이날 무장면까지 14개 읍·면을 돌며 '2025년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진행했다.

나눔대화는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군정방향 보고, 읍·면 주요 사업 설명, 건의사항 수렴과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군수가 올해 군정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직접 설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실제 고창읍에선 "마을 앞에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하천을 건널 다리가 놓여 있지않아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다리 건설을 건의했고, 신태면의 한 주민은 "마을회관

이 오래돼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고 안전진단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인구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총 180여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조성, 읍·면사무소 신축, 관광 인프라 확충, 소공원 시설 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심 군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담

변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참여를 끌어올렸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이 직접 건의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고창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전해 받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발품 행정으로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변화와 성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정기 도의원, 부안군수 출마 선언

명절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기본정책 공약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11일 민선 9기 부안군수 출마 공식 선언으로 '부안형 기본사회'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출마선언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의 부안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부안형 기본사회로 만들기 위해 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1990년대 8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4만7천여 명으로 27년 만에 40%가 감소, 매달 58명이 부안을 떠나고 있다"며 "젊은 방식으로는 부안을 살릴 수 없고 토목과 건설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5대정책을 내세우며 △명절 기본소득 △기본교육 △기본주택 △기본의료 명절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기본정책 공약 제시 △기본금융 등을 구성했다. 설날과 추석에 모든 군민에게 부안지역화폐로 명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8천여 원에 달하는 부

안군 예산의 사용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예산 원칙"이라며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행사가 아닌 주민의 삶에 투자하면 부안형 기본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제9대 부안군의원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을 역임하며, 현재 (사)기본사회 부안본부 상임대표로 활동중에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부안,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부안, 어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안을 꼭 만들어내겠다"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회복지종사자 1557명에 '활력수당' 지급

고창군, 설 명절 이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고창군이 관내 106개소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 1557명에게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설명절 이전에 고창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사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수행기관 종사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전일제 및 반일제 근무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맞손'

한국시료헬스케어연구원·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공모 대응 박차



정읍시가 지난 10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한국시료헬스케어연구원 및 (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 소관 전문기관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정읍시 중점 산업에 접목해 지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재)한국시료헬스케어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향후 정읍시가 추진하는 AI 기

반 의료 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 연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함께 참여한 (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주요 부처의 허가를 모두 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들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와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실무 중심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예산 공모 사업 발굴과 유치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 및 협회와의 협업은 정읍시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전주기 지원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2주 연장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이번 연장 기간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특히,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연장 신청 마감일인

2월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자나 타 시군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